



[종합] 재건축 기대감에 브레이크 없는 집값 강남 호가 7억 뛰어 02



Economy

코스피	3240.08 (0.00)	코스닥	987.58 (0.00)
금리 (미국 3년)	1.220 (+0.029)	환율 (원/달러)	1116.50 (+2.90) (4일)

# ‘mRNA 백신’ 국산화 속도... 제약-바이오사 융합 활발

〈메신저리보핵산〉

## K-백신 주권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이 국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mRNA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mRNA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앞다퉈 나선 것. K-백신 주권을 찾기 위한 제약-바이오 기업 간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도 높다.

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업계가 최근 mRNA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투입해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해 접종 중이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4일 mRNA 백신 생산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제조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인벤티지랩은 mRNA 백신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미세유체법(마이크로플루이딕스)’을 세계 최초로 신약



백신을 살펴보는 연구원.



유해발굴 설명 듣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방문, 유해감식실에서 허욱구 유해발굴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 인벤티지랩, mRNA 생산핵심 LNP 제조기술 확보

개발에 적용한 기업이다.

마이크로플루이딕스는 불안정한 mRNA와 보호막 역할을 하는 LNP를 균일하게 결합해 구형의 LNP 구조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인벤티지랩은 자체 보유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활용해 실험한 결과, mRNA를 95~98% 가두는 LNP 구조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캡핑 기술은 국내 연구진이 확보했지만, 인벤티지랩과 같이 98% 수율에 달하는 LNP 구조체를 만

들어내는 기술과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은 없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에스티팜 역시 LNP 방식을 적용한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을 본격화한다. 에스티팜은 특허를 출원한 5프라임-캡핑 기술인 ‘스마트캡’을 보유하고 있다. mRNA 백신을 제조하려면, 불안정한 mRNA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캡핑 기술이 필수다.

또 기존 mRNA의 면역원성을 훨씬 강화해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높은 효능을 유지하는 경쟁력을 갖췄다. 바이러스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외에도 제2항원을 보강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 반응을 높이는 물질을 추가한 것이다. 에스티팜은 LNP에 사용되는 핵심 지질을 연간 십억 도즈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도 갖췄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역시 진원생명과학과 함께 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 한미약품의 원료의약품 전문 자회사인 한미정밀화학이 가진 5프라임-캡핑 기술과, 아직 후보물질 단계인 진원생명과학의 mRNA를 결합해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3회 FFTK2021’ 푸드테크 비전을 현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테크의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 줄 ‘푸드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기업 경영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푸드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6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1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1)’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란 주제로 그동안 제시해 온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루 앤 윌리엄스 이노바마켓인사이트 공동 창업자이자 글로벌 인사이트 이사가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이노바마켓인사이트는 이노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업계 친환경 ESG경영’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서는 저스트에서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조단 테트릭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저스트는 실리코밸리의 식물기반 푸드테크 선두주자로, 인공계란 ‘저스트 애그(JUST EGG)’를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어 김대훈 누비랩 대표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누비랩은 1초 내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고 식품관을 분석해 개인 헬스케어 솔루션, 음식물 쓰레기 축소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세션에서는 식신 대표이자 한국 푸드테크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익 대표, 실시간 배송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
- 일 시 : 2021년 6월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주 관 : 에이커스
- 등 록 : 참가비: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문 의 : 에이커스(02-6020-6833), 이메일 fftkgo@gmail.com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관건은 공정위

공정위, 결합심사 장기화 예고 경제분석 연구용역 종료시점 이달 초서 올 10월 말로 연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해외 경쟁당국이 아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대한항공은 9개 필수 신고 국가 경쟁당국

에 기업결합심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이다. 또, 대한항공은 이밖에 임의적 신고 대상 국가인 영국, 호주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 국가 기준 6개국 경쟁당국에서 승인만이 남았다. 먼저 올해 2월 대한항공은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절차가 종결됐다. 태국 경쟁당국도 최근 이번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알리며 절차를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같은 기업결합심사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는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관련 경제분석 연구 용역의 종료 시점을 이달 초에서 올해 10월 말로 연장했

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양사 통합 시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이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인수합병)를 위해 진행했던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로부터 약 2개월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30일 국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4월 3일 기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그 두 배에 달하는 5개월 가량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의 심사 장기화는 전체 기업결합심사의 마무리 시점을 늦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주말 신규확진 556명, 닷새만에 600명 아래... 국내발생 541명 /사진 뉴스시스
- ▲ 백신접종 100일만에 1차접종 759만명... 접종완료율 4.4%

- ▲ 올해 공무원 7급 공채 3만8947명 응시... 경쟁률 47.8대 1
- ▲ 野 “군·경찰, 본분 망각한 채 사건 진실 덮고 가리기 급급”



- ▲ 여야 지도부 현충일 추념식 집결... “선열들 희생정신 계승” /사진 뉴스시스
- ▲ 興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